

■ 2011년 4월 4일 월요일

조화·공존 중시 동양사상 부상

예술적 가치 높은 한국 자신감 가져야



이원복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미 플라톤(서양사상)과 공자(동양사상)의 전경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느냐, 변방으로 추락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교육대 대강당.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64·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를 초청해 열린 '아시아에서의 길을 찾다' 강연에는 10대 청소년에서 대학생, 50대 중년까지 4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교육대와 광주MBC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이해 두 번째 공개강좌에서 이 교수는 '동서양의 만남과 충돌,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규모나 취지를 볼 때 '대박'을 낼 거라 확신합니다”라는 특별한 격려로 말문을 연 그는 40여년간 세계여행 경험을 들려주며 두 시간 내내 청중을 사로잡았다.

“서양의 식민주의가 동양의 대제국 중국과 충돌한 것은 두 번(1840, 1860년)의 아편전쟁이었죠. 이는 본격적인 아시아와 유럽의 충돌이었고 최초의 동·서양 시스템의 충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온 우리 뇌리에 자연스럽게 '서양 중심적' 사고가 들어차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양사상은 플라톤, 유대교 경전, 갈릴레오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나는(신을 제외하면) 유일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다. 고로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타협과 공존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노자, 공자, 석가모 대표되는 동양사상의 핵심은 양보, 조화, 공존에 있습니다.”

이 교수는 영국의 철학자 버틀러 러셀(1872~1970년)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서양과 동양사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개인주의, 물질주의, 침략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적 문명과 사조는 20세기와 함께 막을 내리고 이제 중국의 비상과 함께 조화와 공존을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세계의 중심에 있던 '중화(中華)'가 그 위상을 찾아가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하는 이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의 패권을 갖는다는 것은 먼 빛일 뿐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 속에 드러난 문화수용과정의 특징을 되짚어 보며 “서양의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우호적인 태도만으로 방관해온 대한민국의 경우, 더 많은 자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은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이 교수는 “88서울올림픽의 경우에서나 한류 붐을 볼 때 한국의 문화·예술적 가치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어른들도 즐기는 교양만화라는 장르를 개척한 이 교수는 1500만 부가 팔린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를 비롯해 '세계사 산책' '만화로 떠나는 21세기 미래여행' '신의 나라 인간나라' 등을 썼다.

한편,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의 세 번째 강좌는 14일 오후 4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에서 사진작가 박하선(아시아문화비전 소장)씨가 '실크로드에 스며든 아시아인의 삶'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62-360-2125.

3/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달 31일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이원복 교수는 조화와 공존을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취임연주회 가진 광주시향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역동적 움직임 오케스트라를 장악하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신임 지휘자의 열정적인 연주와 '또 다른' 출발에 관객들은 환호와 끝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2시간 30분간의 연주 시간 내내 관객들은 무대 위 연주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클래식 선율에 빠져들었다.

광주시향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드비히(33)의 취임연주회가 지난 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신임 지휘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듯, 이날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1700여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으며 최근까지 광주시향의 지휘봉을 잡았던 구자범(경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씨도 첫 연주회를 지켜봤다.

첫번째 곡 연주에 앞서 특별 무대가 마련됐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광주시 자매도시 샌더시 시민들을 위로하는 음악회였다. 현악파트 연주자들만 무대에 올라 그리그의 '페르판트' 조곡 중 '오제의 죽음'을 연주했다.

이어 루드비히와 협연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이진삼씨가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그들이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물 흐르듯 연주 모습을 보여준 이씨는 이날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황제'를 들려줬으며 앙코르 곡으로 리스트의 '리클레토 페리 프레이즈(paraphrase)'를 연주했다.

신임 지휘자의 면모는 중간 휴식 후 진행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연주에서 나타났다. 음악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듯 지휘봉을 움직이던 그는 마지막 4악장과 5악장, 네 명의 타악 연주자가 두대의 타파니를 연주하는 클라이막스 부분 등에서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오케스트라를 장악했다.

루드비히와 광주시향은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지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앙코르 곡으로 연주했다.

공연이 끝나고 문예회관 로비에서 열린 축하 리셉션에서 루드비히는 “첫 연주회를 의미있게 마무리해 기분이 좋다”며 “광주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향의 다음 연주회는 오는 29일 객원지휘자 여자경씨 초청 무대로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을 들려주며, 루드비히가 지휘봉을 잡는 연주회는 오는 5월 13일 개최된다. 연주 레퍼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다.

한편 광주시향은 이날 공연 전인 오전 10시30분부터는 루드비히가 취임연주회 때 언급했던 대로 공연장을 찾은 광주시민과 학생들에게 리허설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향측은 앞으로 루드비히가 지휘봉을 잡는 모든 연주회의 리허설 장면을 공개할 예정이며 객원 지휘자의 경우는 지휘자의 의함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3월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1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취임연주회 후 단원들과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선조의 유물과 현대 미술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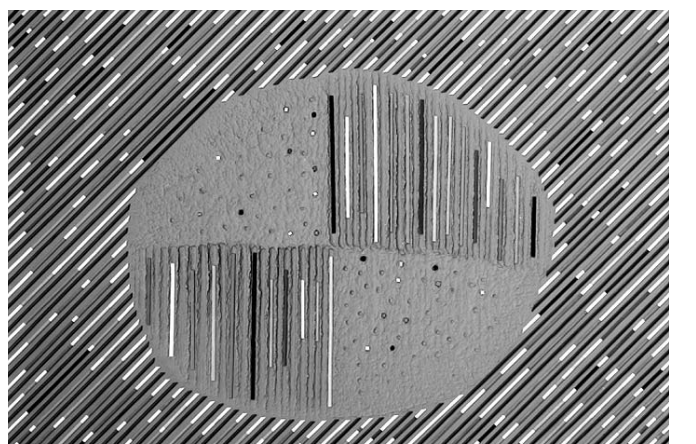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 12월15일까지 '현대미술 만남'전

“선조의 유물과 현대 미술을 함께 감상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12월15일까지 박물관 1층 시민갤러리에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미술 만남'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선주·김수현·김유홍·김종일·문경희·박자은·백민욱·백예경·서경애·이규환·이매리·이병재·정정임·한지희·허정·홍성희씨 등 16명의 작품 270여점을 선보인다.

사단법인 현대미술 에보코와 국립광주박물관의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1차 전시, 10월1일~11월30일 2차 전시, 12월1일~15일 3차 전시로 나눠 진행되며 매회 전시에는 다른 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전시한다.

또 봄꽃이 만발한 박물관 야외정원에 아가자기한 설치 작품을 내놔 자연의 빛을 만끽하며 현대 미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했다. 문의 062-570-702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규환 작 '마음의보석상자+휴머니즘'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